

해군교육사령부 고성이전에 관한 건의안

(의안번호 제918호)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5. 5. 23 고 성 군 수
나. 회 부 일 자 : 2005. 5. 23
다. 상 정 · 의 결 일 자 : 2005. 5. 25 총무위원회 상정 · 의결

2. 주 문

- 최근 국내 여러 언론을 통해 보도된 바 있는 해군교육사령부 이전문제와 관련하여 통인한국의 태평양함대를 꿈꾸는 해군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적의 입지조건을 갖춘 고성군으로 이전 희망
- 진해만과 연접해 있는 고성군은 남해안의 교통요충지로 전국적인 해군 인력확보가 가능한 뿐만 아니라 이충무공 전승지인 당항포가 있는 역사적인 산 교육장
- 역사적 당위성과 지리적 이점을 갖춘 고성군에 해군교육사령부가 이전 할 수 있도록 군민의 대표기관인 고성군의회 의원의 결의로 건의문 채택

3. 제안사유

- 농촌인구의 노령화와 인구 감소로 군의 존립기반마저 위협받는 현실로 이전설이 있는 해군교육사령부를 고성군에 유치하여 지역경제활성화와 인구증가 기대
- 고성군에서 선정한 유치예정지 160만평은 산으로 둘러싸인 분지형 천연 요새로 군사훈련 최적지이며 전 군민이 유치 서명운동에 참여

4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본 건의안은 2005. 5. 23 정임식의원 외 6인의 찬성의원으로 발의하여 최근 국내 여러 언론을 통해 보도된 바 있는 해군교육사령부 이전과 관련하여 현재 해군교육사령부가 위치한 진해만과 연접해 있고, 남해안의 교통 요충지로 통일한국의 태평양함대를 꿈꾸는 해군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적의 입지조건을 갖춘 고성군으로 이전을 건의코자 하려는 것으로
- 우리군은 현재 농촌인구의 노령화와 계속되는 인구감소로 향후 지방자치 단체의 존립기반마저 위협받는 현실을 감안하여 해군교육사령부를 해군 군사훈련의 최적의 입지조건을 갖춘 우리군에 유치하여 상주·유동인구 증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전 군민의 간절한 뜻을 모아 군민의 대표기관인 고성군의회의원 전원 찬성으로 건의안을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

5. 질의 및 답변 : 없음

6. 토 론 : 없음

7. 심사결과

- 2005. 5. 25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